“다 했다….”

학생회실 책상에 놓인 선물을 보니, 절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금요일까지 어떻게 하나 걱정했었는데, 하면 되긴 되는구나.

“완성한 소감은 어때?”

“또 하고 싶지 않네요….”

“하긴 후배가 고생 많이 하긴 했지.”

“아뇨. 저보다 선배가 더 많이 했죠.”

자기 일도 아닌데, 은혜 선배는 남는 시간마다 찾아와 내 선물 준비를 도와줬다.

선배 없이 나 혼자였으면 아직도 헉헉대며 준비하고 있었겠지.

“이제 교무실에 제출하러 갈 거야?”

“네. 선배도 가실래요? 같이 만든 거잖아요.”

“그럴까? 그럼 같이 가자.”

(교무실로 이동)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 학생회장. 마침 잘 왔네. 무슨 일이야?”

“저번에 말씀하신 선물 준비요. 다 해서 가져왔어요.”

“이야~ 학생회 신입 잘 뽑았네. 금요일까지면 되는데 벌써 해왔어?”

“네. 은혜 선배가 도와줘서 일찍 끝냈어요.”

“학생회장이 도와줬어? 왠지 일 처리가 빠르더라~”

고 “후후, 아니에요. 그렇게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준비한 선물이 괜찮았는지 세계사 선생님은 만족한 얼굴로 선물을 건네받았다.

이걸로 귀찮은 일은 끝났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기다려봐라. 오늘 교감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미안한 듯한 세계사 선생의 얼굴을 보니 불안감이 치밀었다.

“저번에 우리 지역 외고에서 크리스마스 축제 같은 걸 했다고 하더라. 학생 주체적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칭찬했다나?”

설마.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우리도 하는 건 어떠냐? 하시더라고.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응? 학생 주도적으로.”

또….

“학생 대표가 학생회잖냐. 그래서 너희가 맡아서 해야겠다.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냥 사진 남길 정도면 되니까.”

일 시키는 거야?

“우리 24일에 학교 나오니까, 날짜는 그때 오후로 잡아뒀거든? 금요일까지 하는 것도 오늘 끝냈는데. 문제없지?”

“아니, 저기….”

“자, 자! 알았으면 빨리들 가봐! 선생님도 할 일이 많아요~”

(드르륵)

교무실에서 쫓겨나듯 나가, 복도에 덩그러니 섰다.

기껏 시킨 일 끝냈더니, 또 일이네. 그것도 더 어렵고 귀찮은 일.

갑자기 학교 축제를 준비하라니, 말이 되냐고….

이럴 줄 알았으면 금요일에 제출할걸….

절망감에 젖어, 아까부터 말이 없던 은혜 선배를 쳐다봤다. 선배도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오는 걸까.

“선배, 괜찮으세요?”

“괜찮아.”

은혜 선배는 별일도 아닌 듯이 웃고 있었다.

“수능도 끝나서 시간은 넉넉하거든. 선생님도 사진 찍을 정도로만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 혼자서도 충분해.”

“그래도 혼자서 하면 힘들잖아요. 다 같이 하면….”

“다들 바쁘잖아. 밤에 시간 내는 것도 미안한데. 내가 모은 학생회 때문에 다른 일을 시키는 건 안 돼.”

“그래서 이번에 후배가 했던 일도 내가 맡으려고 했던 거야. 이번 주에 학생회 시작해서 정신없었을 텐데. 미안해.”

은혜 선배는 고개를 잠깐 숙이고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후배는 신경 안 써도 돼. 축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할 수 있겠어요?”

“후후. 할 수 있겠냐니, 무슨 말이야.”

은혜 선배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두른 목도리를 쓰다듬었다.

“나 학생회장에다가 선배잖아. 이런 일 한두 번 맡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후배는 다른 일에 좀 더 신경 써. 안 그래도 바쁠 텐데.”

은혜 선배는 평소처럼 후후 웃고는 자리를 떴다.

학교 축제를 혼자서 한다니…. 정말 괜찮은 걸까.

찜찜한 마음과 함께 나도 교실로 돌아갔다.